

연극과 연극교육을 향한 기대지평

김 대 현 · 호서대학교 디지털문화예술학부 연극전공 교수



신입생 대부분 배우지망생인 대학 연극과의 현실

1960년대 초에 창설되기 시작한 연극(관련)학과들은 그 숫자가 1980년대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5개 대학을 넘지 않다가 199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4년 현재 4년제 대학에 약 35개 그리고 2년제와 3년제 대학에 약 13개 정도가 개설되어 있다. 여기에 문화관광부 소속의 한국예술종합학교 내에 설치된 연극원을 합치면 그 수는 물경 50여 대학을 육박하게 된다. 1960년대부터 계산하면 약 45년의 세월이, 그리고 급격한 양적 팽창현상이 나타난 1995년부터 계산하더라도 연극교육은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연극과 연극계는 대학의 팽창에 비례하여 풍성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빈약해져가고 있는 인상을 금할 수 없다. 연극(관련)학과 양적 팽창에 비해 기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영화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가 관객 1,000만 명을 동원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대부분이 이 영화를 본 셈이다. 위 영화의 주인공들인 설경구, 장동건, 원빈 등은 그 인기가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휩쓸더니 영화계의 메카인 미국 할리우드까지 넘어가고 있다. 영화뿐만 아니라 TV프로그램에는 세칭 '엔터테이너' 들이 화면을 장악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여기에 연예관련 방송물과 신문, 잡지들의 기사까지를 합치면 우리 일상은 이제 넘쳐나는 비일상적 허구들(드라마 및 유사 드라마)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비일상적 허구들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이다. 물론 제작을 총지휘하는 감독·연출가의 존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눈에 가장 가까운 존재인 배우가 선망의 대상이 된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배우들의 존재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짓눌린 공교육을 잊거나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나 배우지망자가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의 전면에 매년 생겨나는 연극(영화)관련 학과들이 있다.

수요가 공급을 낳는다고 했을 때 사회전반에 만연한 이러한 시류는 필연적으로 많은 배uzzi망생들을 낳았다. 대학의 연극(관련)학과에 진학한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배uzzi망생이라는 사실은 시대적 수요가 낳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시류는 그냥 그대로 좋은가? 아무 문제 없이 계속될 것인가? 또 계속되어도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대학 입학정원이 입시생의 숫자를 초과한 오늘날 유독 연극(관련)학과들만이 기형적으로 매년 새롭게 개설되는 것은 분명 연극을 위해 좋은 현상만은 아닐 것이다. 양적 팽창은 필연적으로 어떤 질적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데, 현재 우리 연극(관련)학과들이 질적으로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또 도달해야 하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극(관련)학과들의 교과과정과 문제점들 그리고 대안에 관해서는 이미 한국연극교육학회가 2001년도 추계정기학술세미나에서 “대학에서의 연극교육과 교과과정”이라는 주제로 심층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그 중 허순자 교수(청운대)의 ‘대학 연극교과과정의 현상에 대한 진단과 방향’은 그때까지의 우리나라 연극학과의 교과과정을 개괄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좋은 논문으로 꼽힌다. 또 교육철학의 측면에서 연극과 연극교육의 상관관계를 논한 논문도 있다. 역시 한국연극교육학회가 2002년도 춘계 학술 심포지엄에서 “중등학교 연극,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새로운 교재 집필의 방향성 모색을 위하여” - 라는 주제로 위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 그 중 안치운 교수(호서대)의 ‘연극교과서에 붙이는 질문들은 제도권 안의 교육으로서의 연극교육과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예술로서의 연극 상호간의 관계에 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논의의 중복을 피하고 새로운 토

론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다음의 몇 가지 논점을 연극과 연극교육에 대한 기대지평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첫째, 연극(관련)학과의 양적 팽창이 연극과 연극계의 풍성함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연극교육의 교과과정의 구성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의 두 주체인 교수와 학생간의 기대지평의 현실적인 간극에 있는가? 둘째, 연극(관련)학과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기대지평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고찰은 결국 연극교육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범위)까지 충족될 수 있는가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고찰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어서 다만 문제의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여는 시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행 연극(관련)학과 교과과정의 특징

양적 팽창이 필연적으로 어떤 변화를 낳게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양적 팽창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거나 질적 변화를 방해하는 어떤 요인들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새롭게 생겨나는 연극(관련)학과들과는 달리 영·호남 지역에는 점차 지원하는 수험생이 없어서 고사하기 시작하는 연극(관련)학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러운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른 질적 변화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먼저 질적 변화를 방해하는 장애들을 살펴보자.

1) 백화점식, 나열식 교과과정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연극원을 제외하면, 전국 연극(관련)학과들의 교과과정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4년제 대학 내의 학과인 경우 1학년 때 관련전공 과목을 3개 내지 4과목을 수강하고 대부분은 교양과목을 수강하도록

짜여있다. 전공은 대부분 2학년 때부터 하게 되는데, 이때 학교의 정책에 따라 학부제의 경우 최소 12과목(한일장신대)에서 최대 43과목(상명대), 연극영화의 경우 60과목(순천향대)까지 나열되어 있다. 2년제 혹은 3년제의 경우에는 개개의 편차가 상당하지만 최소 5과목(서울예대 방송연예과)에서 최대 37과목(서울예대 연극과)까지 제시되어 있다. 특히 2년제의 경우 4년제에 비해 교양과목의 편성이 최소화되어 있고 실기과목의 편성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수업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기술적 실기과목의 편성을 우선시한 결과로 생각된다.

4년제 대학 내에 설치된 연극(관련)학과의 경우 2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수업기간 때문에 개설과목의 수는 현격히 많지만 교과과정은 이론 40%, 실기 60%의 비율로 짜여져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 이론과목들도 연극연출론, 서양연극사, 한국연극사, 희곡분석 및 작법, 드라마투르기 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문과학의 소양을 기반으로 마음과 생각을 넓히는 과목들보다는 실기를 전제로 한 이론들이 주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기과목들도 연극제작·실습을 중심으로 연기, 무대디자인, 무대기술, 분장실습, 조명, 호흡과 발성, 서양가창, 뮤지컬 실습, 신체훈련, 댄스 씨어터 등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서 결국 연기교육을 중심으로 한, 배우양성에 초점을 둔 교과과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94년에 개원한 연극원의 경우 5개 학과(연극학과, 연출과, 연기과, 극작과, 무대미술과)에 개설된 교과목들은 일반 대학교에 설치된 연극(관련)학과들의 그것에 비해 단연 심화된 교과과정을 갖고 있다. 전문연극예술인의 육성을 목표로 창설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과의 전공에 집중해서 교과목을 배치한 것이 일반 대학의 백화점식 교과과정에 비해 심화과정을 거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대학교 내에 설치된 연극(관련)학과이든 연극원에 설치된 학과이든 그 교과과정들은 모두 이론과

● 실기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2년에서부터 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학습활동을 통해 교과과정의 내용들을 모두 습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예술 중·고등학교와 사회 일반의 연기학원 등의 교과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다. 즉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극관련 교육기관들은 일정한 양의 연극관련 내용들을 일정기간 동안 습득할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심화교육이 아닌 백화점식, 나열식 교과과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백화점식, 나열식 교과과정은 연극이 갖는 종합적 특성에서 기인할 수 있다. 행동의 모방으로서의 연극은 우리 삶의 다양한 형태를 재현하기에 무대 위에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천차만별의 종류와 스타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지리적·사회적·시대적·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연극의 상대적 차별성은 오늘날의 연극 개념의 정의에 의해 겨우 연극이라는 느슨한 범주에 묶일 수 있을 뿐 개별적인 특징과 형태만을 비교한다면 전혀 서로 다른 것들로 나타난다.

연극의 스펙트럼이 이같이 넓어지고 다양해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백화점식, 나열식 교과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교육자의 입장에서 일정한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소한의 내용을 펼쳐놓은 것이 현재 우리가 보는 백화점식, 나열식 교과과정이다. 문제는 그 교과과정 속의 많은 과목들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과목들의 연속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희망에 차서 연극(관련)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에는 대부분 연극을 어렵고 힘든 것으로 인식하고 결국 소수의 학생들만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현장으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백화점식, 나열식 교과과정을 개설한 관련학과 교수들과 일정한 환상을 갖고 연극(관련)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기대지평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2) 교수와 학생들의 기대지평의 간극

현재 우리나라 연극(관련) 학과의 전임교수들은 주로 극문학이나 연극이론(연극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문학적 특성과 소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은 대부분 배우에 대한 환상을 갖고 학과에 입학한다. 그러한 수요는 실기중심의 교과과정의 편성으로 나타나지만, 그 교과과정의 실천은 전임교수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실기 과목의 대부분은 해당전공을 전공한 외래교수들에 의해 행해지게 된다. 결국 이런 현실은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기대지평의 간극으로 나타나게 된다. 교수들은 무수히 많은 과목을 한정된 시간에 가르치려다 보니 자연 기초를 강조하게 되고,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과는 동떨어진 많은 과목에 지치게 된다. 그리고 결국 연극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연극(관련)학과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 중 겨우 10%에 불과한 학생들만이 연극계로 진출하는 현실이 이러한 문제점의 반증이다.

예를 들어, 배우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대학교의 경우에서 연기전공을 위해 심화된 수업을 받기가 어렵다. 겨우 연기와 관련된 몇 개의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기껏해야 연극제작·실습을 통해 스스로 연기를 익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년에서 4년까지의 교육기간은 별 의미가 없이 흘러가고 만다. 교육의 효과가 현저히 낮은 것이다. 또 집중적인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연극원의 경우에도 졸업생들의 현장 진출이 일반대학의 연극(관련)학과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고 볼 수 없는 현실은 결국 연극과 연극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대지평을 가져야 하는, 즉 연극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

정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3) 예술교육의 목표는 교양인의 육성인가 아니면 엘리트 예술인의 육성인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우가 되기를 원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교과과정을 배우훈련에 집중할 것인가? 둘째, 처음과 도중에 배우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어떤 교과과정과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가? 셋째, 교육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가? 즉 한 사람의 배우가 교육에 의해 길러질 수 있는가?

먼저,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우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교과과정을 모두 배우 훈련을 위한 것으로 채울 수는 없다. 만일 모든 교과과정을 배우 훈련을 위한 것으로 채울 경우 매년 50여 개 연극(관련)학과에서 배출하는 초보배우들의 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학습자가 원한다고 해서 모두 그 수요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습자의 동기를 자극하고 새로운 목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입학생이었을 때 유명한 배우를 꿈꾸던 신입생들은 4학년이 되면 대부분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안정된 생계수단을 찾아 떠난다. 즉 자신들이 4년 동안 배웠던 교육의 내용을 실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전혀 배운 바 없는 것으로 자신의 직업을 삼게 된다. 실제로 10% 정도에 불과한 소수의 졸업생들만이 연극현장으로 나갈 뿐 나머지는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아픈 현실이다.

현실의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연극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목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연극(관련)학과의 교육목표는 졸업생의 10%에 불과한 미래의 배우를 길러내는 것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일반

교육의 목표처럼 연극과 연극교육을 통해 완성된 인격체를 길러내는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대답이 배우를 길러내는 것이든, 일반 교양인을 길러내는 것이든 현행 교과과정들을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일반 교양인을 길러내는 것은 2년 내지 4년 동안의 대학교육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배우를 길러내는 연극교육이다. 연극을 예술이라고 했을 때, 배우 역시 예술가이다. 과연 예술가를 정해진 일정한 시간과 교과과정을 통해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2년 내지 4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연극인을 길러내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사회의 기대가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지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예술교육은 보이지 않는 사회의 전반적인 체계를 통해 육성되다가 보이는 교육체계와 합쳐져 완성된다. 즉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 예술교육은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장차 전문가 교육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 또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사회교육을 통한 일정한 훈련을 계속하게 된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극을 공부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연극목이 재량학습과 특별활동들을 통해 교과목으로 편성될 기회를 얻기는 했지만, 음악·미술·체육 등 타 분야의 예술교육에 비해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대학입시를 위해 음악은 7년, 미술은 3년, 그리고 연극은 한 달이라는 통념은 사회 시스템 안의 연극교육이 부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대학에서의 연극교육은 일반 교양인을 육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예술가인 배우를 육성해야 하는가?

교과과정 - 생각과 마음을 넓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연극은 예술이면서 동시에 기술이기도 하다. 그러나

● 교육의 대상으로서 보다 적합한 것은 예술로서의 연극보다는 기술로서의 연극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은 가르침보다는 깨달음에의 자극에 더 적합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기술이라면 일정한 표준을 설정하고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 그 기술의 체득이 가능하지만 예술의 경우에는 하나의 표준을 설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 표준에 도달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연극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아직도 정확하게 확정하고 있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연극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만일 한 사람의 배우가 4년 동안의 교육으로 길러질 수 없다면, 우리는 대학교육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한 사람의 배우, 한 사람의 예술가를 길러내고 싶다면 우리는 현재보다 긴 시간을 배우훈련을 위해 준비하고 또 사회 여러 기관들의 협력을 약속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대학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그 순간 한 사람의 완성된 배우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성급한 기대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학은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학의 교과과정은 보다 기초적이며 생각과 마음을 넓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오히려 배우는 학교를 졸업한 후 그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현장에서의 실습과 현실에서의 훈련으로 한 사람의 예술가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시점을 연기해야 하고 또 배우들도 스스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사람의 배우는 대학을 졸업한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작되어 그 이후 10년이나 20년쯤 완성되는 것이라면 대학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새롭게 수정되어야 한다. ✎